



## Layers of Time

시간이 만들어 내는 색

허명욱

"시간의 레이어가 차곡차곡 쌓여 해묵은 컬러를 만들었다."

흐르는 시간은 흔적을 남긴다. 빛을 잃고, 탁해지고 벗겨져 허물어지는 것.  
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. 이것은 인간의 삶과도 흡사하다.  
사물들은 제 각자의 흔적을 남기며 늙어가는 것이다.

봄 여름 가을 겨울... 계절이 바뀌며 만들어 놓은 해묵은 컬러를 만들기 위해  
오늘도 붓을 든다. 시간이 만든 컬러, 그것이 쌓여 만든 물질.  
그 물질이 오브제가 되었다. 패브릭도 옷도 힘이 없는 물질이지만 돌이 만나  
단단하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사물이 되었다.

사물은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(方式, Formula)이 있다.  
나는 색으로 시간을 버텨 낸 사물과 앞으로 버텨 낼 사물 사이에서  
관람객이 사유(思惟, Thinking)하길 바란다.